

NSL.1.47

국가보안법
.....
여성피해자 대회

일시 : 1999년 8월 12일(목) 오후 7시

장소 : 기독교회관(구관) 2층 강당

211 -

주 최 |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주 관 |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여성국
후 원 |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행동연대
민주화실천 가족운동 협의회
전국민족민주 유가족 협의회

NSL.1.47

순서

사회 : 손미희(전국연합 여성국장)

● 민중의례

● 인사말 오종렬(전국연합 상임의장)

● 사례 발표

1) 인혁당 사건 - 여상화(여정남 가족)

2) 의문사 - 이철규 열사 어머니

3) 남한 조선 노동당 사건 - 손외순(손병선 가족)
황선희(최호경 가족)

4) 해외(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재일한국청년동맹/재일한국민주여성회)
- 김지영(재일한국민주여성회 회장)VTR

5) 영남위원회 사건 - 김이경(영남위 사건 출소자)

여성의 힘으로 국가보안법을 철폐합시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여성국장 / 손미희

너무나 오랜 세월이었습니다.
그리움이 그리움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끝내 하나된 민족을 만들기 위해 살아온 세월.
그 세월에 조국의 반쪽을 잃고, 부모를, 자식을 잃었습니다.
이제, 지친 가슴 부여안고 가야 합니다.
그리운 조국을 되찾기 위해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해야 합니다.
기필코 민중의 힘으로 분단철폐보다 더욱 견고한 장벽, 국가보안법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제 눈물을 거두고 한숨을 거두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그렇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우리에게 분단철폐보다 더욱 견고한 장벽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지 50년이 되었건만 우리는 아직도 그 장벽에 막혀있습니다.
그러나 장벽은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숭고히 간직하셨던 장기수 선생님들이 감옥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남과 북의 노동자들이 이겨도 좋고 져도 좋은 흥겨운 축구경기로 만났습니다.
남·북·해외가 함께 만나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성큼 앞당긴 민족대토론회에 참석했던 전국연합 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조금만 단결하여 밀어붙이면 인권을 유린하고 통일을 가로막았던 국가보안법의 완고한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여성국은 아직도 성차별과 억압이 존재하는 이 사회에서 당당하게 여성의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가정 이, 개인의 삶이 파괴되어 어머니의 이름으로, 아내의 이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여성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민족 구성원의 절반인 여성이 나섰음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국가보안법 철폐투쟁과 3자연대의 정신을 실현하는 통일투쟁에서 힘차게 만납시다. ♡

신민혁명당(신혁당) 사건

1차 인혁당

인민혁명당 사건이란 것이 맨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64년 8월 14일이었다.
이날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은 기자회견을 소집, 「북괴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적인 지하조직으로 국가를 변란하려던 인민혁명당 사건을 적발, 일당 57명중 4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6명을 전국에 수배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김형욱 부장이 발표한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인혁당은 1962년 1월, 북괴로부터 특수사명을 띠고 남하한 간첩 김영춘의 사회로, 통일민주청년동맹 중앙위원장이던 우동읍과, 동 간사장 김배영, 김영광, 빨치산 출신 박현채 등이 참가한 가운데 창당 발기인회를 갖고, 외국군 철수와 남북서신 문화경제교류를 통한 평화통일을 골자로 한 강령과 규약을 채택하여 발족했다. 인혁당은 창당후 조직을 확대해오다가 1964년 4월 북괴중앙당의 지령을 받고 동당 중앙상임위원회인 도예중, 정도영, 박현채 등이 중심이 되어 한일회담반대 학생데모를 유발토른 획책함과 동시에 학생데모를 4.19와 같은 혁명으로 발전케 함으로써 현정권을 타도할 것을 결의했다.

인혁당은 학생, 언론인등을 포섭, 현정권이 타도될 때까지 학생데모를 계속 조종함으로써 북괴가 주장하는 노선에 따라 남북 평화통일을 성취할 것을 목표로 투쟁하다가 6.3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그들의 죄상과 당조직망이 폭로될까 우려한 나머지 학생데모 주동자가 일체의 연락을 끊고 지하로 잠복, 기회를 노리던 중 검거되었다」

인혁당사건은 중앙정보부에서 관련자들을 조사하다가 64년 8월 18일 서울지검에 송치되었다. 사건은 묘한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정보부가 주장한 것처럼 사건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국가보안법 사범이 아니라는 점과 이로 말미암은 검찰내부의 분규 및 관련자들에 대한 고문설이었다. 중앙정보부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지검 공안부의 담당 검사진은 이용훈부장검사를 비롯하여 최대현검사, 김병우검사, 장원섭검사였다.

그들은 만 18일간 거의 철야로 수사했다. 그 결과는 중앙정보부의 송치 결과와는 달리 기소할 만한 내용의 사건이 아니라는 결론이었다.

민청학련 배후조종 혐의의 두번째 사건

유신 2년째 접어든 그해 정국은 재야세력과 학원가의 반체제 데모 때문에 소란하기 그지 없었다. 일부 언론인, 문인, 대학교수, 종교인, 재야정치인들이 유신체제에 반대하여 개헌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대학가는 반정부 데모로 기세를 올리고 있었다.

정부는 유신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비상권한인 긴급조치권의 발동으로 이를 봉쇄하려 했지만, 반체제의 불길은 수그러질 줄을 몰랐다. 74년에 들어와 「3.4월 위기설」이 떠도는 가운데 4월 3일 서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등에서 약속이나 한듯이 일제히 반정부 데모가 터졌다. 이들이 살포한 선언문은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이란 명의로 되어있었다.

바로 이날 정부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를 선포했다.

그 내용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과 이에 관련되는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그 구성원의 잠복 회합 연락 그밖의 활동을 위하여 장소 물건 금품 기타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며, 이 조치를 위반한 자 및 비방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로 되어 있다.

긴급조치 4호 선포에 즈음한 특별담화에서 박대통령은 「민청학련은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혁당재건위 조직과 재일 조총련계 및 일본공산당, 국내 좌파, 혁신계 인사가 복합적으로 작용, 74년 4월 3일을 기해 현 정부를 전복하려 한 불순 반정부세력으로, 이들은 북괴의 통일전선 형성공작과 동일한 4단계혁명을 통해 노동자 농민에 의한 정권 수립을 목표로 했으며, 과도적 정치기구로 민족지도부의 결성을 획책했다. 민청학련의 배후 주동인물로 전 인혁당 당수 도예종과 여정남등의 불순세력, 재일조총련 비밀조직의 조직원인 광동의와 광의 조종을 받은 성명미상의 일본공산당원과 성명미상의 일본인 2명 기독교학생총연맹 간부인 이철, 유인태 등 주모급 학생운동가와 유근일 등이다」

10년만에 인혁당 이름을 다시 듣게 된 것이었다. 혐의사실도 10년 전의 것과 거의 똑같았다. 현정부를 전복하고 노동자, 농민에 의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학생데모를 배후조종했다는 점이 달랐다. 전 대통령 윤보선씨를 비롯하여 김찬국 교수, 박형규 목사, 지학순 주교, 김지하 시인 등도 민청학련의 배후조종자로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됐다.

민청학련사건 관련자를 포함하여 대통령 긴급조치 4호 위반으로 검거된 사람은 모두 1천 24명에 달했다. 그 가운데서 재판에 회부된 인혁당 관련자는 서도원(52,무직), 도예종(50,삼화건설 회장), 하재완(43,무직), 이수병(37,삼락일어학원강사), 김용원(39,경기여고교사), 우홍선(45,한국골든스텝프사상무), 송상진(46,양봉업), 여정남(30,무직), 김한덕(블록제조업), 유진곤(대산목재사장), 나경일(노동), 강창덕(무직), 김종대(일어학원원장), 전창일(극동건설 외공부장), 황현승(광신상업교사), 이창복(무직), 조만호(학교도서관), 정만진(목욕업), 이재형(가전사), 임구호(고려학원강사) 등 23명이었다. 당시 황산덕 법무장관이 밝힌 인혁당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인혁당은 「남한에 강력한 지하당을 조직하라」는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1961년 남파된 북괴간첩 김상한이 재남공산주의자들을 규합하여 1962년 1월에 조직한 지하당이다

인혁당의 조직과 활동상황은 1964년 6.3사태 배후조종자로 인혁당관련자들이 검거됨으로써 처음으로 드러났는데 당시 김상한과 재정책 김배영이 1962년 5월, 월북하고 없었기 때문에 검거된 자들은 고문에 의한 조작설을 유포, 법정투쟁을 통해 극히 경미한 형을 받았다. 그뒤 1967년 김배영이 인혁당 재건 지령을 받고 다시 남파되었다가 검거되어 인혁당의 진상이 뒤늦게나마 입증되었으나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다시 처벌할 수가 없었다.

인혁당은 그뒤 지하로 잠복했다가 1972년 7월 4일, 남북대화의 시작을 틈타 지하활동을 강화, 1973년 10월 이후의 학원소요와 유류파동, 개헌청원서명 등이 일어나자 제 2의 4.19로 사회혼란을 조장, 민중봉기로 정부를 전복함으로써 적화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라고 속단, 인혁당 재건을 완료하고 학생을 선동, 폭력에 의한 정부전복을 기도하다가 검거된 것이다」

인혁당 관련자들은 74년 5월 27일, 비상군법회의 검찰부에 의해 국가보안법, 반공법,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등 혐의로 기소되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약 10개월이 걸렸다.

3심을 거치는 동안 인혁당 관계에 관련한, 피고인들의 형량은 거의 변함이 없었다.

특히 도예종, 서도원,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송상진, 여정남 등 8명의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형에 변함이 없었다.

고문설을 둘러싼 공방전

인혁당 사건을 둘러싸고 또다시 고문에 의한 조작설이 분분하게 나돌았다.

피고인들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가족들에 의해 고문설이 알려졌다. 다만 긴급조치하의 통제된 언론풍토와 대공관계사건에 대한 전통적인 경계와 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에게 까지는 소문이 전달되지 못했다. 맨처음 고문과 조작설을 대담하게 터뜨리면서 항의하고 나선 사람은 외국의 목사와 신부들이었다. 「조지 오글」목사와 「제임스 시노트」신부 같은 외국 종교인들이 기도회나 반체제 집회 같은 곳에서 인혁당을 수사기관의 고문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인혁당에 대한 고문설을 극적으로 전한 사람은 시인 김지하였다. 그 자신 민청학련 사건 배후조종자로 재판에 회부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75년 2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김씨는 「동아일보」2월 16일자에 실린 옥중수기 「고행-1974」에서 서대문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때, 인혁당관련자들과 나누었던 대화를 소개함으로써 인혁당사건이 고문에 의해 조작된 것임을 전했다. 김씨는 이를 때문에 반공법위반으로 재구속되었다.

그 무렵부터 인혁당 사건의 고문조작설은 재야세력, 종교계에서 파다하게 떠돌아 다녔다. 민주회복 국민회의 같은 재야단체는 「김일성 지령에 의해 인혁당이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것은 공소사실에도 없는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공개재판과 사건진상 및 고문사례진상을 관민 합동으로 공동조사하자고 제의했다. 기도회에서 피고인 가족들은 여러가지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같은 분분한 의혹과 호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인혁당이 북괴의 지령을 받은 지하당임에 틀림없다는 확신에서 일보도 후퇴하지 않았다. 정부는 인혁당 관련자들이 발뺌을 위해 고문설등 교묘한 방법으로 국민의 이목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사법사상 암흑의 날 , 4월 9일 - 사형선고 다음날 사형집행

정부측의 이같은 강경자세 속에서 대법원은 4월 8일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관련 피고인 36명에 대해 원심대로의 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도예종, 서도원,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송상진, 여정남 등 8명의 인혁당 관련 피고인들은 사형이 확정되었다. 이례적인 사실은 대법원 판결 바로 다음 날인 4월 9일 이들 8명에 대한 사형집행이 있었다는 점이었다.

당시 군법회의 법에 따르면 사형이 확정될 경우 국방부장관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사형집행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이 내려진지 5일 이내에 형을 집행토록 되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확정판결 바로 다음날 사형을 집행한 케이스는 극히 드문일이었다. 이 때문에 재심이나 탄원을 시도해 볼 여유도 없었다. 그리고 시체를 유족들에게 인도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실랑이도 의혹의 소지를 남겼다. ☹

“세칭 인혁당사건 관계자들을 사면, 복권, 보상하십시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남편들은 가족들 얼굴 한번 못보고 천추의 한을 남기고 아침이슬처럼 스러져 갔습니다. 그후 많은 사람들이 그 들기도 어마어마한 죄명들에 묶여 감옥에 끌려가고 또 풀려나고 사면되고 복권되고 마치 재미있는 놀이를 하는 것 같은 법의 유희를 변화무쌍한 이 세태를, 우리 유족들은 수없이 거듭 켜진 가슴을 아파하면서 너무 부러워서 피눈물에 얼룩진 가슴으로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6.29선언 이후 또 많은 2,335명이란 수치의 내란음모에서 부터 별의별 사건의 주인공들이 사면복권되는 이 마당에도 유독 우리들(세칭 인혁당사건), 온천하가 모자라면 전세계가 다 알고 있는 너무 억울하게 희생된, 너무 어처구니 없이 희생된 정치적 재물임을, 더욱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면 여야를 막론하고 더 잘 알고 있을 이 사건을 사면, 복권, 보상에서 제외하고 어떻게 법이 만민에게 평등하다고 할 수 있으며 무슨 민주화를 실현한다고 할 수 있으며 민주화가 실현될 가망이라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세칭 인혁당사건)을 이대로 묶어 사장해서 발밑에 깔아놓고 그 위에서 그 어느 누가 민주화를 선포하고 대통령이 될 수 있으며, 어느 누가 민주화를 부르짖으며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되었던들 무슨 민주화 정치를 할 것입니까. 1977년 당시 통일당에서 발간한 "민족의 행진"이란 책자에 실린 그 당시 탄압받고 있는 양심인들 명단에서 인혁당 사건에 묶인 인사중에서도 유독 죽은 분들 8명의 명단이 누락되어 있어 양일동당수(지금은 고인)에게 당신이 무슨 권리로 역사를 왜곡해서 기록했느냐고 울부짖으며 항의했을때 있어 버리고 누락되었다고 미안하다고 한 웃지 못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번 사면, 복권, 보상에서도 있어 버리고 누락된 것은 아닌지요? 복권, 사면, 보상을 결정짓는 여러 형태의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묻고 싶습니다. 세칭 인혁당 사건이 조작이었다는 것을 정말 몰라서 이러는 것인지요? 박정희가 자신의 실책 중에서 가장 큰 실책이 8명을 사형시킨 일이라고 후회했다는 이야기를 윤보선 전대통령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의 현정권이 유신정권의 연장이 분명 아니고 진정 민주화를 향한 참신한 정권으로 변신을 하였다면 우리들(세칭 인혁당사건) 즉각 사면, 복권, 보상하십시오. 만약 우리들 사면, 복권, 보상할 수 없다면 유신정권과 같음을 시인하는 결과 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법의 평등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인간입니다. 죽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더 죽여 가족들의 아픈 가슴에 못을 박지 마십시오. 저는 남편이 사형당한 이후 신문에 나는 박정희사건을 그가 죽을때까지 약 5년간 이가 아프도록 꼭꼭 씹어서 뱉곤 하였습니다. 남편 산소에 매주 꽃을 들고 찾아가서 푸른하늘을 향해 "살인마 박정희 천벌을 받으라!"하고 외쳤습니다. 한번 외치면 효과가 없을 것 같아 꼭 세번씩 외쳤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무심치 않았습니다. 박정희는 머리가 하나도 남아나지 않고 죽었을 것입니다. 내가 저주하여 신문에 난 그의 머리를 꼭꼭 씹었기 때문이라고 꼭 믿고 싶습니다. 박정희가 죽기전에는 세상이 사람사는 세상같지가 않았습니다. 저희 남편이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당했다 해도 내가 누명을 벗기지 못하고 죽었다면, 억울해도 모든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나 남편의 무죄를 다 밝히고 조작한 정보당 국에서도 할말이 없었는데 사람은 죽여버리다니, 이게 어디 법치국가며 사람사는 세상이라!

그래서 택시를 타면 택시 운전수에게 인혁당이 조작임을 폭로하면서 "나를 못믿겠으면 파출소나 경찰서로 나를 고발하십시오. 만약 그렇지 못할 때는 내가 한 이말을 당신 아닌 10명에게 이야기 하고 그들 10명보고 또 다른 사람 각각 10명에게 이야기하자"고 울부짖으며 거리를 누볐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나를 경찰서나 파출소앞에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같이 집 앞까지 위로하며 태워다 주었습니다. 이점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박정희가 죽은 후에는 이젠 "내 원수는 하나님인 줄 알아주었다"하고 억지로 생각하고 매주 산소에 가서 울부짖던 일도 그만 두고 언젠가는 민주화가 되어 내 억울하게 죽은 남편도 사면, 복권, 보상을 떳떳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온 천하가 민주화 물결이고 죄없는 양민을 8명이나 재심청구의 기회도 주지않고 이웃나라들에게 야만인이라는 평을 들어가며 새벽에 학살한 원흉 박정희도 제명에 못죽고 자기가 가장 아끼던 부하에게 죽고 없는 이마당에서도 온천하가 다 아는 조작된 인혁당 사건을 모른체 외면 한다면 이는 거짓 민주화 그리고 유신정권의 연장임을 인정한 소치임을 명심하십시오. 결코 유신정권의 연장이 아니고 민주화를 선언하고 외치는 정권 내지 정당들이라면 하루 속히 세칭 인혁당사건 관계인사들을 사면, 복권, 보상하십시오.

-1987년 8월 세칭 인혁당 사건으로 희생된 우홍선의 처 강순화-

이철규 열사사건

사건 경위

이철규 열사는 1964년 5월 6일 전남 장성군 삼서면 대도리 관동부락에서 3남 2녀중 셋째로 출생하였다. 장성군 삼서중학교를 졸업하였고 광주 금호고등학교 2학년 재학시 1980년 5.18을 체험하였는데, 부상자를 실어 병원으로 후송하는 일을 하기도하였다. 1982년 3월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입학하여 동아리 UNSA 활동하였고, 1985년 11월 외세 반독재투쟁위원회 활동중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으며, 대전교도소에 복역중 본격적으로 한반도의 미국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1987년 7월 6월항쟁이후 사면조치에 따라 가석방 되었는데, 당시 조선대학교는 박철웅 총장의 전횡에 맞서 격렬한 반봉건 학원민주화투쟁을 전개하고 있었으며 이 열사는 출소후 곧바로 복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였다

이 열사는 1988년 8월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3학년 2학기에 복적하였고, 1989년 1월 민주조선 교지편집위원장을 맡게되었다. 1989년 4월 10일경 민주조선 교지창간호가 발행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4월 20일경 민주조선 편집위원 전원 에 대한 수배조치가 내려졌고, 이 열사에 대해서는 현상금 300만원에 1계급 특진이 붙었다.

1989년 5월 3일 후배 생일을 위해 택시를 타고 약속장소로 가던 중 광주시 북구 청옥동에 있는 청암교에서 경찰의 검문을 마지막으로 행방이 묘연하게 된 이후 5월 10일 오전 11시 30분경 청옥동 4수원지에서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1989년 11월 4일 사인진상규명투쟁 178일만에 민주국민장으로 장례식을 거행하여 망월묘역에 묻혔다.(묘지번호 28-2)

의문의 죽음 - 시체는 말한다 -

● 검문 당시의 상황에 대한 의문

당시 20명 이상의 경찰병력이 검문현장에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근 주민들을 중심으로 하여 4수원지를 지나가던 택시기사, 시민들은 4수원지에서 거의 검문을 받아본 적이 없으며, 대규모 병력(15인 이상)이 동원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또한 검문경찰의 진술이 일치되지 않고 검문시간조차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못했는데 이는 제 4수원지의 검문이 경찰에서 말하는 순차적 검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급박하게 실시된 검문이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 당시 주변에 있었던 시민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경찰의 검문시간은 정확히 이 열사가 검문지점을 통과하기 직전에 시작됐다. 이 열사가 제 4수원지를 지나던 89년 5월 3일 저녁 삼거리에는 15-20인 이상의 병력과 중형차 2대 정도, 승용차 등이 출동하여 이 열사를 추적하였다.

이처럼 3일 저녁 경찰 또는 공안기관은 이 열사의 이동과정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청암교 삼거리에서 계획된 검거 작전을 수행하였다. 또한 이 열사의 사전구속영장이 89년 5월 3일 밤 20:50경에 문세영 검사의 신청으로 발부되었다.

● 도주경로에 대한 의문

검찰은 이 열사가 제 4수원지에서 익사한 것이며 익사의 원인은 경찰의 추격을 피해 광주로 되돌아오기 위해 수원지 철조망을 넘어 수원지 경내에 들어 왔다가 다리밑 축대에 실족 추락하여 익사한 것으로 발표했다.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이 열사는 도주시작 시간으로부터 18분내에 산속에서 다시 내려와 수원지 쪽으로 오기 위해 철조망을 통과하게 된다.

이 열사가 찾았다는 철조망은 관리인 집으로부터 380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가로 56cm, 세로 30cm 간격으로 다른 곳보다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곳인데 이 열사가 우연히 이를 찾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 검찰은 철조망은 비교적 낡아 녹슬어 있는 상태였고, 군데군데 사람이 기어갈수 있는 구멍이 뚫려 있었다고 했으나, 철조망의 기둥은 2m 간격으로 서 있으며 관리인 최왕규씨에 따르면 사람이 기어갈수 있는 곳은 두 곳 정도가 있는데 한곳은 물이 흐르는 암거이며, 또 한곳은 수원지 관계자들만이 아는 곳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철쭉같이 어둡고 추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철조망 사 이를 발견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또한 이 열사의 손목 상처가 도주할 때 생긴 것이라면 철쭉같은 어둠속에서 맨손으로 숲속 도주와 철조망을 찾기 위해서는 지형과 수목구조로 인해 오히려 손바닥과 손등에 찢긴 듯한 수많은 상처들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사의 손바닥이나 손등에는 아무런 상흔도 발견할 수 없었다. 어두운 산길은 달리는 동안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철조망의 가시도 용케 한 번에 피해서 도망을 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

부검과정 및 결과의 문제점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과정상의 문제점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는 부검의 철칙인 장갑과 메스 등의 교환수칙을 어겼으며 이는 각 장기가 플랑크톤으로 오염되었음을 의미하고 결국 각 장기내 플랑크톤의 발견으로 인해 검찰의 실족익사 판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2) 골절유무를 정확히 확인하고 폐기종을 확인하기 위한 X-ray검사가 행하여지지 않았다.

3) 국과수는 사망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지 않았다.

① 위장의 내용물은 사망 2시간 전에 먹은 식사로 여겨지는데, 사망뒤의 부패과정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밝힘으로써 사망 뒤 몇일 경과했는지 추정할 수 있었음에도 밝혀내지 않았다.

소장의 내용물을 검사함으로써 소화된 짜장면과 단무지 등이 들어있는지가 확인된다면 3일 사망하였는지, 아니면 경찰 등에 연행당한 후 사망하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었음에도 국과수는 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

③ 손과 발의 표모피는 5월의 수온에서 2-3일이 경과하면 형성된다. 이원태(국과수)씨도 이철규 열사의 시신에서 진행된 표모피를 보고 최소 2-3일이 경과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시신이 7일간 물속에 있으면 장갑상, 양말상의 표피박리가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은 것은 이 열사가 5월 3일 실족익사하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5월 6-7일경 시신이 유기되었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부분인데 국과수는 과학적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④ 이 열사가 최초 추격을 당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상처등의 염증변화를 추정하면 5월 3일밤에 사망하였는지, 아니면 연행 당한 후 몇일 뒤에 사망하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음에도 국과수는 염증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4) 고문과 구타에 의한 외상으로 의혹되는 모든 현상을 국과수는 부패현상으로만 단정함으로써 조직검

사를 통해 확증할 수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의혹을 크게 하였다 것은 부검상의 중대한 미비점이며 불성실한 태도였다.

① 두정부, 두피하의 암자색 제리상 물질에 대한 조직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② 왼쪽 안구만이 돌출된 것에 대해 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조직검사를 통해 확증할 수 있는데 조직검사도 행하지 않고 부패현상이라 하고 있다.

③ 오른쪽 어깨가 좌측에 비해 심하게 부어 있으며, 반점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좌우 비교 조직검사를 행하지도 않았다.

④ 양 손목, 양 발목에 끈으로 묶인 듯한 자국이 남아 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한 부종 및 염증유무를 조직검사도 하지 않았고 특히 양 손목의 탈색 부분은 물속에서 무엇인가 감겨져 있었음을 의심케 하는 부분으로써 타살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 익사판정의 문제점

국과수는 각 장기내의 플랑크톤 발견과 익사폐의 소견으로 익사판정을 내렸으나 미비점이 많고, 육안적 소견이 익사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상호 모순이 있다.

1) 익사라면 위장과 폐장에서 익수가 발견되어야 하고, 흡수되었다고 할 지라도 흉탕물의 흔적이 발견되어야 할 것이나 위장과 폐장은 매우 깨끗하였다. 익수가 폐로 흡입되는 경우 폐기종 등의 현상으로 폐가 부풀리며 이에 따라 흉곽의 확장과 폐의 전면에 압흔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현상이 남아있어야 했고 짜장면 대신 밥입일 들어 있었다. 이것은 사망전 분명히 쌀밥을 먹었다는 것이며, 검찰은 이 열사의 당일 행적 중 17:30-20:00까지의 행적을 밝혀내지 못하고 이 시간에 밥을 먹을 수도 있다고 변명을 했으나 응색하다.

● 유류품의 문제

1) 발견된 잠바

1989년 5월 12일 11:45경 취수탑으로부터 청암교쪽으로 약 100미터 떨어진 지점, 수원지 출입통제 철조망안, 도로로부터 9미터 떨어진 지점에 서있는 파리똥 나무 밑에서 의경 소형민이 베이지색 계통의 잠바를 발견하여 검찰에 인계하였다. 검찰은 이를 이 열사의 것으로 단정하였으나,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이 역시 이 열사의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명되었다. 특히 잠바 발견 장소는 위도로변으로 내린 비(5월 6일 8.1mm, 5월 10일 2.8mm, 5월 11일 14.7mm, 5월 12일 5.2mm)가 흘러내리는 위치인데도 발견된 잠바는 압전히 개어져 있는 상태로 전혀 젖어 있지 않았다.

2) 잠바 호주머니에서 발견된 유류품

당일 검문 받기전 '길목카페'에서 88라이트 담배를 한갑 샀는데 (이는 당일 이회복양이 차 값을 계산하면서 담배값까지 계산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다.) 발견된 담배 속에는 6개피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평소 담배를 많이 피우지 않는 이 열사의 담배 습관으로 봐서는 카페에 있던 30-40분 사이에 14개피를 피운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도주중에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다. 담배는 성냥처럼 조그만 물방울이나 습기에도 노랗게 변색이 되고 풀어 헤쳐진다. 그러나 검찰의 발표에 의하면 상수리 나무 밑에 있었기에 점퍼나 담배, 수첩이 비에 젖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하나 의문이다. 3일 이후 서너 번의 비가 왔고, 점퍼의 발견장소는 위 도로변 등에서 내린비가 흘러내리는 위치였다. 점퍼 발견 당시 안주머니에 들어 있던 수첩은 위로 넘기는 수첩이었으며 찢어진 흔적만 있고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열사가 네조각으로 찢어버렸던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는 옆부분에 뜯어진 자국이 있었다. 따라서 발견된 수첩과 찢어 버려진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도 동일한 것이 아니었다.

3) 뒤늦게 발견된 20만원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특수물리실에서 5월 14일 09:30경 바지를 개봉한 후 수색하던 중 바지 뒤쪽 우측 호주머니에 10,000원권 지폐 20개가 든 흰 봉투가 반으로 접힌 상태로 들어 있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5월 14일 이전에 경찰이 사체에 대해 7-8차례 확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견하지 못하다가 1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특수물리팀에 의해 발견된 것은, "이 열사가 택시를 타고 호반산장까지 가려면 차비만해도 4천원인데 어떻게 유류품에서 3천원밖에 나오지 않느냐? 또한 이철규 열사는 반으로 접히는 지갑을 가지고 다녔고 식당에서 1만원권으로 계산한 사실이 2일날 있었다"는 의문이 강하게 제기된 후에 발견되었다.

4) 발견되지 않은 유류품

박효(88년도 조대 여학생회 간부, 후배)양의 증언에 의하면 2일 밤 21:40-50경에 지산유원지 음식점 '수궁'에서 식사를 하고 나올 때 이 열사가 음식값을 반으로 접은 지갑에서 1만원권 지폐로 계산을 했으며, 5월 3일 '길목카페'에서 만난 이희복(24, 호남대 국문과 졸. 후배)양은 불펜으로 무언가를 쓰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한편 심재수(21, 조선대총학생회 홍보부, 후배)씨는 1989년 4월말경 양동시장에서 런닝과 팬티를 구입하여 학교에 두고 있다가 5월 3일 아침전화를 받고 20:00경 금호고 앞에서 이 열사에게 건네주었다. 런닝과 팬티는 하얀 바탕에 파란줄이 들어있으며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건네 주었고, 이 열사는 그것을 사과리 주머니에 넣었다고 한다. 그런데 발견된 유류품중에는 지갑과 불펜 그리고 런닝과 팬티가 없다.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

사건 경위

1992년 10월 6일 안기부(현 국가정보원)는 북한이 남한 내에 공작지도부를 구축하고 남노당 이후 최대 규모의 간첩조직인 '남한조선노동당'을 결성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수사발표를 했다. 10여년간 서울에서 활동하며 북한에서 직파한 간첩 10여명을 지휘했다는 총책 이선실(당시 70세 가량), 이선실에게 포섭되어 밀입북 하였다가 노동당에 가입했다는 황인오 등 조직원 총 400여명의 대간첩 조직이라는 내용이었다. 이 사건은 재판도 하기전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발표되었고, 당시 대통령 선거를 두 달 남짓 남겨두고 김대중 후보에게 불리한 정치공세용으로 이용되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안기부에서 처음 발표했던 명칭은 '남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이 아니라 '민족해방 애국전선'이라는 명칭의 조직임이 밝혀지고 북한에서 직파했다는 10여명의 간첩은 단 한 명도 잡히지 않은 점, 법원에서 이선실이 북한의 고위급 인물과 동일인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점, 400여명의 간첩 조직이라 하였으나 실제 구속자는 65명(92년 당시)에 불과했고 구속자 중에도 34%에 해당하는 22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등 안기부의 수사발표에 불신을 주는 증거들이 계속 쏟아졌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선실의 존재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미심쩍은 점이 많다.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극히 예민한 시기에 터진 이 사건은 당시에도 안기부의 조작이 아닌가 하는 의심

을 자아냈고 적어도 안기부는 조직명칭과 조직의 성격, 조직원 숫자에 있어서는 사실과 다르게 발표하여 사건의 진상을 부풀리고 왜곡하였다.

당시 수사국장이었던 정형근(현재는 국회의원)은 고문 및 복종조작 사건의 당사자로서 많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당시 안기부는 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강제로 연행하여 안기부 지하실에서 20여일 간의 구타, 잠 안 재우기 등의 고문과 공포분위기 속에서 조사가 이루어 졌으며 상당부분 진실과 다른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

손병선

손병선씨는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수감되어 있던중 부인과 아버지,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지만 임종도 지키지 못하였다. 또한 손병선씨의 둘째딸, 민영씨도 아버지의 일을 도왔다는 이유로 7년형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 수감생활을 했다. (분단된 조국의 굴절된 현대사는 통일운동에 몸을 바친 3대의 삶을 모두 옥죄고 있다. 손병선 선생님의 아버님은 해방정국에서 완전한 자주독립과 통일운동을 벌인 이유로 2번의 옥고를 치루셔야 했고, 분단된 조국의 아픔은 손선생님과 그 딸 민영에게까지도 이어졌다. 현재 손병선씨와 민영씨는 석방되었다.)

다음은 손병선씨가 교도소에서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역시 교도소에 있는 민영씨에게 쓴 편지이다

사랑하는 당신께, 간밤에는 눈을 좀 부치셨나요. 나의 고통이 아무리 아프다해도 당신만 하겠습니까. 고통이 심하시거든 참지 말고 주사라도 놓아 달라고 하세요. 징역의 고통이 아무리 아리다 해도 죽음의 고통만이야 못하겠지요.

그래도 당신의 사경을 헤매는 사투를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외롭고 쓰린 격리의 아픔, 징역살이의 피눈물을 맛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분단의 가슴 찢어지는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오장육부가 찢어지고 전신의 뼈가 녹아 내리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당신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할 일을 다했습니다.

맨손이 될때까지 온몸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겨레의 고통을 치료하기 위해 오직 하나뿐인 생명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세상을 알고부터 이웃들의 어려움을 돌보면서 살아왔고,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 천금같이 귀한 자식들을 천대받고 설움받은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보, 그동안의 3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이 아픔도 이제 서서히 견혀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자식들의 사람다운 삶을 위해서 우리는 후회없이 살았지 않았습니까. 여보, 부디 편안한 마음 갖으시기를 바랍니다.

- 93년 8월 13일 백번 천번 죽어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보고싶은 어머님께.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음식도 잠수시지 못하고 몸은 아파서 고통스럽고 자식은 멀리 있지도 않으면서 오지도 않고, 어머니 용서하세요.

저는 하루에도 몇번씩 어머님 곁으로 갑니다. 지난 번에 동생들과 여기에 오셨을 때, 저는 이것이 어머니님과 제가 이세상에서 마지막 만남이란 걸 짐작했습니다. 그때 어머님께서 제게 눈물을 닦으라고 주신 한 쪽이 찢어진 손수건을 어머님께서 제게 직접 주신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죽을 때까지 고이 간직하겠습니다. 어머니, 하필 모두들 제가 이런 처지에 있을때 떠나게 되는지 몹시 쓸쓸하고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어머님, 이 불효를 용서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머님, 부디 아버지를 용서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로 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머니...

- 94년 5월 13일 불효 병선 올림.

사랑하는 딸아. 오늘은 내가 세상에 태어난 지 32년된 날이구나. 32년전 그날도 나는 서대문 형무소에 있었는데, 오늘은 너도 함께 아버지와 같이 이 길을 걷게 되었구나.

사랑하는 민영아, 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수병동지등 우리방 동지들은 네 이름을 지으면서 이 아이가 자랄 때는 조국이 통일되서 이런 비극이 이야기로만 전해져야 한다고 다짐들을 했었는데 이젠 너까지 함께 고통을 짊어지는구나...

부디 낙심말고 너는 이런 고통받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고, 그 상처가 하루속히 아물도록 우리는 더욱 굳은 마음으로 온몸 바쳐 최선을 다하기로 하자."

- 93년 8월 19일 아버지가.

최호경

최호경씨는 1992년 9월 추석을 하루 앞두고 명절준비를 하던 중 전화를 받고 나가자, 골목 입구에 있던 6-7명의 안기부 요원들에 의해 연행되었다. 잠깐 나갔다 오겠다 하고 나간 후,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7년째 교도소 독방에서 지내고 있다. 80년 성남에 살면서 노동운동을 시작했고 91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결성되자 성남 지구당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90년 통일운동과 자주권 실현을 위해 활동하던중 평소 알고 지내던 황인오의 권유로 <민족해방 애국전선>을 결성하고 활동하던 중 안기부에 피검되었다.

감옥으로 보내는 편지

민혁아빠 보세요

당신과 헤어져 일곱번째 봄을 맞습니다. 그동안 세월이 많이 흘러 당신과 나도 사십대가 되었고, 민혁이도 중학생이 되었어요.

그동안 건강하십니까.

산과 들에 예쁘게 핀 꽃도, 화사한 나들이 객도 우리와는 거리가 먼 풍경이지요.

봄이 오는 길목에서 우리는 큰 전쟁을 치른 듯 합니다. 꼭 석방되리라 믿었던 당신이 석방되지 못했을 때, 그토록 씩씩하던 민혁이도 병을 앓고 말았으니까요.

아빠와 중학교 입학식에도 가고, 놀러도 가고 목욕탕에도 가겠다던 민혁이의 꿈이 사라질 때, 하늘의 구름도 스치는 바람도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외면하였습니다.

하늘을 올려다 보고 나쁜 놈들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절규했지요.

그런데 민혁이가 나를 위로해 주더군요. 제발 울지 말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공부 잘해서 엄마 기쁘게 해 주겠다고요. 그토록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 민혁이 대견하지요.

중학생이 되어 양복입고 넥타이 매고 학교가는 모습 보고싶지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빨리 나와서 민혁이가 더 크기 전에 아빠 노릇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진 아빠편이거든요.

옆에 있던 동지가 떠난 후, 혼자남은 감옥은 더 어둡고 쓸쓸할 텐데...

요즘처럼 당신이 걱정스러웠던 적도 없었던것 같아요.

더욱더 운동 많이하고, 공부도 많이 해서, 개인에게 결코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지난 번 영치금 찾아다가 민혁이에게 쓰라고 내놓은 돈 찾았어요.

그리고 싶진 않았지만 아빠로서 아들에게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마음이라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곳에서도 봄을 느낄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올 봄에는 특히 눈물을 많이 흘렸지만, 하루 빨리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식구 각자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헤어져 있던 슬픈 시간만큼 우리의 완전한 만남은 더 값지고 아름답다울 것입니다.

서로 기도하고 노력하기로 해요.

그럼 이만 쓸께요. 안녕히 계세요.

1999. 4. 민혁엄마.

소위 '영남위원회' 사건

사건 경위

- 98. 7. 울산지역 17명, 부산지역 3명 반국가단체 '반제청년동맹' 구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 98. 8. 서울지역 참여연대의 14개 단체. '영남위원회' 사건 부산·울산 대책위, 북한동포돕기를 김정일보위투쟁으로 조작한 사건 규탄 시민대책위 등 전국단체 기자회견 개최: 영남위원회 사건은 중환자들과 부부의 구속으로 심각한 인권유린이 발생하고 조작의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인권유린을 즉각 중단하고 사건의 의혹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내용.
- 98. 9. 부산지방경찰청이 김창현 울산동구청장 외 14명 반국가단체 결성혐의로 전원 기소함.
- 98. 9. 구속자 중 중환자에 대한 치료제 반입과 외부치료 허가를 위한 단식투쟁 돌입
- 98. 10. '영남위원회' 사건 구속자 9명에 대해 (정대연, 이희, 이정희, 이철현, 임동식, 천병태, 김용규, 김성란) 1차 공판 : 정대연씨 모두진술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구속자 전원 검찰의 공소사실 전면 부인.
- 98. 10. '영남위원회' 사건 구속자 6명(박경순, 방석수, 김이경, 이은미, 김명호, 홍정련)에 대해 1차공판 진행: 박경순씨 모두 진술을 통해 3년동안 개인의 사생활을 24시간 밀착감시하고 있었던 것은 수사를 핑계로 자행된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
- 98. 11. '영남위원회' 사건 구속자 가족 이영순씨(울산동구청장 김창현씨 부인), 박희영씨(울산연합전집행위원장 정대연씨 부인)가 이현만 부산경찰청장, 김호진 보안과장, 부산경찰청 K상무, 조갑제 월간조선편집장, 우종창 월간조선 차장대우 5명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함: 고발사유는 월간조선 9월호에 게재된 '울산의 지역정권을 장악한 김정일 추종 주사파 피의자 민선구청장 김창현 수사비화' 등 4개의 기사를 게재하는 과정에서 공판을 하기전에 피의사실을 불법으로 유포하여 심각한 명예훼손을 범한 관련자들을 고발한 것임.

- 98. 12. 검찰구형
- 99. 1. 재판부 1심 선고
- 99. 5 검찰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을 '이적단체 구성'으로 공소장 변조
- 99. 5 재판부 항소심 선고에서 이적단체 구성 혐의만 적용, '북한동포돕기 성금은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 검찰의 주장처럼 북한을 수호하고 김정일을 보위하기 위해 납부한 것이라고 볼수 없다'고 판결, 전화 감청과 대화녹음자료, 비디오 테이프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음.

인권유린 상황

1.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는데도 긴급체포영장으로 연행했다.

체포동의서에서는 "피의자가 급히 은신하려 하므로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라고 제시하지만 연행자 전원이 도주상태나 도주를 준비하는커녕 7월 22일 새벽 6시 30분 경 무방비 상태로 집에서 잠을 자다가 연행되었고 김창현 구청장은 7월 23일 4시 30분 구청장실에서 업무를 보다가 연행되는 등 도주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2. 압수수색 영장없이 불법적으로 수색했다.

연행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제시없이 집을 수색하여 마구잡이로 압수해갔다. 심지어 아이들의 지켜보는 과정에서 집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놓고 안방까지 들어와 이부자리를 들추고 장롱을 조사하기도 했다. 특히 김창현 구청장의 경우는 집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드릴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 마음껏 압수수색하였다. 또 부산노동자회 사무실에 경우에도 보안수사대가 철문을 드릴로 뚫고 사무실 벽을 뜯고 침입하여 컴퓨터 2대와 각종 상담자료, 책등을 탈취해갔다.

3.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대부분의 연행자가 미란다 원칙을 요구하였지만 묵살당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나 외부에 연락을 취하지 못하도록 집의 전화번호를 빼버리거나 폭력적으로 전화를 빼앗는 등 외부와의 일체 접촉을 막아버렸다.

4. 강압적인 수사를 자행했다.

임동식씨의 경우 보안수사대에서 조사를 하다가 갑자기 부산시경 12층 에어콘도 틀지 않은 조사실(당시 35도에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에서 새벽 1시까지 조사하고 다시 새벽에 일찍 불러 사실상 잠을 못자게 하는 가혹행위를 했으며 김이경씨의 경우도 하루종일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였다.

5. 가족을 빌미로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다.

김창현, 방석수, 김명호, 홍정련씨 등에게 말하지 않으면 배우자도 구속시킨다고 협박했으며 임동식씨에게는 자백을 하면 처와 처제를 풀어주겠다고 회유하는 등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다.

6. 엄마와 부부구속은 아동학대와 반인륜적인 행위이다.

- 1) 임동식, 이은미씨 부부의 경우
4살 난 딸 해솔이는 밤마다 엄마를 찾으며 울고 있다. 낮에는 어린이집에 맡겨지고 밤에는 이모나 이웃

에서 돌보는데 밤마다 엄마를 찾아 온다고 한다. 부모가 연행된 이후 밝고 명랑했던 해솔이는 자주 놀래고 오줌도 가리지 못하는 정서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처제 이희씨도 함께 구속된 상태라 이희, 이은미씨의 아버지와 가족들의 고통 또한 심하다고 한다.

2) 박경순, 김이경씨 부부의 경우

9살 된 아들 정우는 엄마 아빠의 구속으로 인해 고아 아닌 고아가 되어버렸다.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아는 사람 집에서 기거하고 있는 정우의 경우 방학이 끝나면 돌볼 사람도 제대로 없는 형편이라고 한다.

3) 홍정련씨의 경우

홍정련씨에게는 9살 된 딸 누리와 4살 의범이가 있다. 엄마가 연행된 후 두아이는 이집, 저집을 옮겨 다니며 생활하고 있다. 아빠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 울산과 부산을 오가며 엄마 면회 다니기에도 힘겨워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7. 중환자들에 대한 강압수사는 반인권적 행위이다.

1) 간경화로 투병중인 박경순씨

간경화로 인해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바 있는 박경순씨는 민간요법과 한방으로 치료 중이었는데 이번 구속으로 치료가 되고 있지 않다. 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절대적 안정이 필요하며 안정을 취하지 않은 채 수사를 강행할 경우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보안수사대는 이번 사건의 총책으로 박경순씨를 지목, 입원조차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계속 강행했으며 구치소로 넘어온 후에는 통원 치료마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만성디스크 환자 이은미씨

만성디스크로 치료를 받고 있는 중 구속되었다. 평소에도 제대로 서있거나 걷기도 힘들어하며 오래 앉아 있지 못하는 상태인데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부터는 눕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조사받았다. 병원치료도 규칙적으로 받지 못해 현재 잠깐 걷는 것도 매우 힘든 형편이다. 부산구치소에서는 특히 22명을 수용한 45평 방에서 다리조차 뻗지 못하고 생활했다.

3) 교통사고 후유증과 만성요통으로 고통받는 홍정련씨

만성디스크 중증환자인 홍정련씨는 평소 약과 물리치료로 간신히 생활해 왔다. 연행이후에 보안수사대는 몸조차 가누기 힘든 상황에서 눕지도 못하게 하며 조사했을 뿐만 아니라 학력동에 대한 인신공격과 욕설, 협박 등 폭력적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연행 이후 줄곧 통증으로 잠조차 이루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부산구치소측은 주사와 진통제만을 줄 뿐 제대로 된 치료를 외면하고 있다. 현재 홍정련씨는 21명을 수용한 45평의 방에서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다.

8. 구속자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다.

구속자들은 부산시경의 16층짜리 호화판건물을 굳이 놔두고 '해양개발공사'로 위장한 보안수사대에서는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조사를 받았으며, 면회도 제때 시켜주지 않아 가족들이 생업조차 포기한 채 울산과 부산을 오가며 면회하고 있다.

특히, 천병태씨의 부인 장선미씨는 임신 5개월의 몸으로 남편의 소재파악을 하지 못해(보안과에서 알려 주지 않음) 보안수사대, 시경, 경찰서를 오가다 유산을 하는 아픔을 당하기도 했다.

9. 가족들의 면회조차 조사를 핑계로 제한하였다.

구치소로 이감된 후 직계가족만 면회를 할 수 있다며 장인조차 면회를 제한하여 구치소 이감후 4일만에 면회를 하는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차단되었다.

구치소와 검찰에 대한 가족들의 거센 항의가 잇달자 급기야 가족의 경우 면회를 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바뀌었지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데도 "어떻게 형인줄 아느냐, 장인이라는 걸 입증해라..."는 등 여전히 일반인은 물론 가족면회마저도 제한하여 행형법에서 보장된 피의자의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무시했다.

이화춘 조작간첩 사건

이 화 춘

- 1958년 10월 익산시 삼기면에서 출생
- 1986년 이리, 익산농민회 조직부장 및 민주농민 편집위원
- 1987년 10월 민중대통령 후보 백기완 추대위원
- 1990년 11월 민중당 이리지구당 사무국장 역임
- 1991년 7월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사노맹) 후보조직원
- 1994년 8월 간첩조작 사건으로 구속

사건 경위

이화춘(40세, 농업, 전북 익산시 삼기면 기산리 364)씨는 소위 일본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1994년 8월 26일에 구속되어 7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5021)에 수감되어 있다. (2000년 8월이 만기) 가족은 처 이순덕(양봉업)과 중학생인 딸, 하나 와 초등학교생인 아들 둘, 두메와 미르를 포함하여 세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이화춘씨는 고등학교 2학년때 숙부 이좌연씨의 '울릉도 간첩단사건'에 아버지와 여러 친척들이 연루되어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고 집안은 계속되는 감시와 주변의 질시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당했으며 취직을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아 본적지에서 농사를 짓고 살던중 익산지역에서 농민운동을 하게 되었다.

이후 민중당 익산지구당 사무국장을 역임하면서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활동했고 91년 7월 사노맹의 후보 조직원이 되었으나 이후 사노맹조직이 탄압에 의해 활동이 정지, 해체되고 본인도 별다른 활동 없이 지내다 양봉업을 하면서 생업에 종사했다.

그러던 중 일본에 있던 숙부 이좌영씨와 연락이 닿아 일본에 다녀오기도 하고 숙부를 통해 생활비를

지원받게 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1994년 8월 주사파 파동 이후 전격적으로 안기부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2대에 걸쳐 소위 조작간첩이 되었다.

현재 지난 98년 8·15 사면때 시행했던 준법서약을 거부하고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다음은 이화춘씨가 큰 딸 하나에게 보낸 편지이다.

-사랑하는 나의 보배, 하나보아라 -

오늘로서 칠월도 마지막이고 팔월의 달력을 보며 우리가족에게 의미가 아주 큰날이 둘이다. 동그랗게 표시가 돼 있더구나.

5일날은 너는 뱀지도 못한 너의 할아버지 일흔일곱번째 생신날이고 31일날은 그분의 열여섯번째 맞는 제삿날이기에 내 아버지이자 너의 할아버지인 그분의 생애를 생각해 보노라면 금새 목이 매이고 그리움이 사무치는 구나.

너희와 내가 이렇듯 떨어져 서로 그리워 해야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너의 할아버지 삶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크게 어긋나는 말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의 복잡한 현대사를 이해하기엔 니가 아직 어리긴 하지만 평소 너의 사고가 나이에 비해 자못 깊다고 판단하기에 오늘은 우리 가족사를 개략적이거나 너에게 들려주려 한다.

내가 서울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던 1974년에 생긴 사건이니 벌써 25년전 일이구나.

요즘 유행하는 어느 유명가수의 노랫말처럼 어느날 갑자기 우리일가 친척들 중에서 너의 할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남자어른들 수십명이 어디론가 끌려갔다. 고등학생이던 나까지도 끌려갔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는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 일이지않아?

끌려간 곳은 다름아닌 인간으로서의 상상조차 할수 없는 온갖 고문으로 악명을 떨치던 중앙정보부였다. 수많은 너의 할아버지들이 오랜 기간동안 끔찍한 온갖 고문으로 조작되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울릉도 간첩단으로 만들어져 세상에 발표되었다.

전북 익산에서 농사밖에 모르던 너의 할아버지가 울릉도 간첩단의 주요인물이라서 얼마나 황당한 일이었겠니? 짐작컨데 너의 할아버지는 평소에 울릉도가 어디에 있는 섬일지도 모르셨을 것이다. 그 시절은 유신독재가 기승을 부리던 참으로 살벌한 시대였다.

온 집안에 풍비박산나서 충격으로 너의 증조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이웃동네에서 조문은 커녕 동네에서조차 무서워서 마음놓고 우리집엘 드나들지 못했었다. 돌아가신 분이 어디 네 증조할아버지 뿐이었겠니. 큰집의 큰 증조할머니께서도 충격으로 돌아가시고 모든 노인들이 몸져 누우셨지. 줄 초상에 모든 친척어른들이 잡혀갔으니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이 실감이 되더구나.

그때 나의 희망은 산산이 무너져 버렸다. 학교를 계속 다닐 의욕과 의미를 잃어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단다.

내가 학업을 포기한것이 가슴 아픈게 아니라 너의 할머니께 남은 실낱같은 희망을 무참하게 꺾어 버리고 가슴에 못을 박은 철없던 행동에 대한 자책인 것이지.

우리집안이 울릉도 간첩단에 연루된 내막을 간략히 얘기하마.

지금 일본에 사시는 너의 작은 할아버지께서 해외에서 유신독재 항거에 앞장을 서셨기에 유신독재정권

으로서는 늘 눈엣가시와 같은 존재였다. 당시 너의 작은 할아버지는 서울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가끔 나오셨고 중앙정보부에서는 너의 작은 할아버지를 붙잡아 간첩단의 두목으로 만들어 죽이려고 하였기에 이를 알게된 너의 작은 할아버지는 그뒤로, 우리나라에 나오시지를 않게 되었다.

그분을 붙잡을 수 없게된 중앙정보부는 그에대한 앙갚음겸 계획을 진행시키기위해 우리집안을 모두 간첩으로 만든 것이지 간첩이라면 당연히 간첩을 한 내용이 있어야 할것인데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일본 너의 작은 할아버지한테서 금전적 도움을 받았으니 그게 바로 공작금이었던 것이지 더욱 웃기는 것은 그 당시 어린 우리들에게 준 용돈마저도 모두 공작금이라고 우기는 것이었으니 지나가던 소도 웃을일 아니겠니? 현대 그것이 결코 웃을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재판에서도 그 터무니없는 내용들이 고스란히 인정되는 시절이었으니 말이다.

그 사건이 나고 꼭 20년, 우리 집안의 지울수없는 상처가 조금 아무는가 했는데 내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난 오랜 절망과 방황끝에 우리집안의 불행은 우리나라가 안고있는 근본적 모순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걸 깨닫게 된 나는 우리민족의 통일과 민주화의 대장정에 적극 동참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미 그때부터 갈히는 것쯤이야 각오한 일이었으나 이제 자식까지 잡혀가는 꼴을 보며 역장이 무너져 넘어 달아나 버린 너의 할머니 모습과 잡혀가는 나를 바라보던 너의 겁먹은 눈초리를 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구나.

사랑하는 내딸아! 아버지가 지금 준법서약을 거부하며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너희들 세대에까지 그릇된 역사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한다. 준법서약제가 결코 정착되어서는 안될 잘못된 제도라는 것은 여러 차례 말을 했으니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다.

아버지가 존경해 마지않는 문익환 목사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악법을 수많은 사람들이 온몸을 내던져 부딪힐 때만이 비로써 깨어지는 것이라 한다. 아버지가 이렇게 준법서약을 거부하고 감옥살이를 고수하는 것도 기꺼이 그 수많은 사람중에 한명이기를 자청하여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의 품에서 재롱을 부리던 네가 어느새 이만큼 자라고 이제 채 십년이 못되어 어른이 될텐데, 지금 우리사회의 질곡과 여러 모순들이 그때까지도 이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수 있겠니? 니가 굳게 자라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된다면 내가 고난의 길을 자청했듯이 너 또한 그러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기에 더욱 그렇다. 너마저 내 뒤를 따르는것이 안타까운게 아니라 그때까지도 세상이 변하지 않을까 그게 두렵고도 걱정스러운 것이기에 부도덕과 폭력, 악법과 불의에 적당히 타협할 수 없는 것이다.

세상에선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 일러 양심수라고 하며 다른말로는 확신수라고도 한다. 자신의 신념이 옳다고 굳게 믿으며 그 신념에 따른 행동을 했기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라 한다.

아버지의 행위는 조국의 통일과 민주화를 앞당기기 위한 것이었으며 통일과 민주화는 이제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보편적 가치인만큼 지금 아버지의 징역살이를 넌 자랑으로 삼을지언정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된다. 니가 아버지의 딸이라면 언제나 가슴을 짚고 늘 당당해야 한다.

엊그제 점견내내 니가 참으로 대견스럽더구나. 아직 어리기에 멋모르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조르는 두 동생에게 "지금까지 오년도 참고 기다렸는데 그깟 이년을 더 못기다리느냐"고 점잖게 나무라는 니가 얼마나 어른스러운지 눈시울이 뜨겁더구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너의 편지마다 점점이 녹아 있는 것에서도 드러나듯이 아버지가 하루빨리 집에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 너인들 속으로야 오죽하라만 내게 한 번도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늘 용기를 주려 애쓰는 너를 보며 수많은 양심수들 중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본다.

사랑하는 나의 보배, 하나야, 너는 아버지의 가장큰 사랑이다. 이러한 너의 마음가짐이 너의 어머니에게

서 비롯된 것임을 알기에 난 너의 어머니께도 늘 감사하는 마음이라 한다.

다시 말하거니와 난 니가 공부만 잘하는 아이이기를 결코 바라지 않는다. 나라를 망치고 국민들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위협하는 가람들도 거의가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이다.

중요한것은 바른 마음을 갖는것이고 그 끈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성과 같이 되도록 끊임없이 다져야 되며 그런뒤에라야 배움이 윽게 쓰여지는 것이다. 바른 마음을 반성과 같이 다지는데는 선행을 쌓는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야

늘 네 주위를 둘러보고 나눔을 생활화하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남는것을 나누는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쉬운일이다. 나눔의 참 가치는 모자라는 가운데 나누는 것이니 지금의 네 처지가 곤궁함만을 닦해서는 안된다. 소외 받는 사람들, 고통받는 이웃들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게 되면 자신의 할 일과 장차 나아가갈 길이 자연히 열리고 보이게 될것임을 아버지는 굳게 믿는다. 명심할것은 선행을 쌓되 자신의행위를 과시하거나 자랑따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다. 성서에도 있지않든? 오른손이 하는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이야, 며칠후에 너희들이 장기수 할아버지 댁에서 목기로 했다고 들었다. 특히 손님노릇을 할적에는 몸과 마음가짐을 더욱 바르게 해야한다. 두메나 미르에게도 니가 잘 이르기바란다.

어느새 날이 밝아오는구나. 오늘은 이만쓰마, 방학을 즐겁게 건강하게 보내거라. ☘

99년 7월 마지막날 이른 새벽에 광주옥에서 아버지가 널 생각하며

마지막 빨치산 정순덕

마지막 빨치산, 여성전사, 정순덕

선생님은 1933년 경남 산청군 삼장면에서 나셨다. 정감록을 공부하던 할아버지가 지리산으로 들어가시면서 지리산자락 아래마을이 선생님의 고향이 된 것이다. 작은 땅을 자작도 하고 또 남의 땅을 빌어 소작도 하던 아버지 정주삼 님은 '촌에서는 지식인 축에 드는 분'이었다. 마을 서당의 훈장이 아프거나 다른 이유로 오지 못하면 대신 학동들을 가르치는 접장을 하실 정도로 한문지식을 가진 분이였다. 그러나 정작 선생님은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봉건사상이 농후한 선생님의 아버지는 '여자가 글을 배우면 나중에 시집을 가서 자꾸 친정에 편지해 썼는다'며 학교에 보내주지 않으셨다.

선생님은 해방이 되고 나서야 청년들이 문맹퇴치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한 야학에 다니며 글을 깨우친다. 학교에 다니지 않았던 선생님은 아버지의 영향으로 조국이 일제의 식민지이며 독립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선생님의 아버지는 일제가 세계전쟁을 일으켜 침략한 곳을 알라고 나눠준 세계지도를 보시고 '이것이 우리나라 조선이다. 지금은 일본에 빼앗긴 상태지만 되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항일사상을 갖을 수 있도록 선생님을 교육하셨다.

지리산입산, 체포, 투옥...

1948년 여순사건이후 생존자들이 지리산으로 입산하며 국군과 빨치산의 대립이 계속되었고, 당시 18살

이었던 선생님은 가족과 함께 국군의 소개 명령에 따라 친적덕에서 거의 한해를 지내야 했다. 부모님과 5남매가 넉넉치 않은 친적덕에 얹혀 사는 것은 고역이었고 선생님들의 부모들은 1950년 1월 선생님을 결혼시켰다. 당시의 형편으로는 감히 잔치는 엄두도 못낼 처지라 선생님은 그야말로 물 한 그릇 떠 놓고 혼례를 올렸다. 총소리가 멈추지 않은 상황에서의 혼례였다.

7개월의 결혼생활을 하던 중 전쟁이 일어났다. 좌우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그때 선생님의 남편은 인민위원회에서 일을 하게 된다.

그러나 전세가 바뀌어 국군이 다시 마을에 들어오자 남편은 인민군을 따라 지리산 깊숙이 들어간다. 남편 있는 곳을 대라며 국군들로부터 모진 고통을 겪던 선생님은 남편을 찾아 3일 분량의 식량과 옷가지를 싸 산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지리산에 올라가 만난 남편은 '산청유격대'에 있었고 이후 선생님은 '진양군 유격대'의 대원이 되었다. 1951년 2월의 일이다.

그후 국군은 빨치산 토벌 작전을 대대적으로 펼쳤고 많은 빨치산은 지리산을 붉게 물들이며 흩어졌다. 선생님이 남편을 마지막으로 본것은 52년 1월 18일이었다. 그 만남을 마지막으로 선생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남편이 전사했음을 알게 되었다.

53년 7월 휴전협정 조인 후 산에 남아 있던 빨치산들은 소부대로 분산하였다. 휴전협정 후 6개월안에 열리게 되어 있는 정치협상의 결과를 기다리며...

그러나 정치협상은 열리지 못했다. 53년 9월 정순덕 선생님은 노영호를 부대장으로 한 부대에 소속되어 덕유산으로 옮겨갔다. 한편 마을에 살던 가족들은 경찰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해야 했다. 아버지가 집에 일찍 돌아오면 경찰들은 산에 가서 딸을 찾아 보지 않았다고 괴롭혔고, 늦게 돌아오면 딸을 만나고 오느라 늦은 것이 아니냐며 사실대로 말하라고 고문을 했다. 아버지는 고문 휴유증으로 오래 살지 못하였다.

'마지막 빨치산'이었던 선생님이 체포된 것은 63년 11월이었다. 50년에 입산한 후 13년이 지난 후였다. 체포과정에서 선생님은 대퇴부에 총을 맞았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지서에 도착해보니 형광등 빛이 오랜 지색으로 보였다 한다. 단 몇시간만에 다리는 완전 절단되었고, 그후 선생님은 한발로 생활해야 했다. 절단하지 않았다면 8개월이면 회복될 수도 있었을 한쪽 다리는 선생님의 몸에서 떨어져 나갔다.

생활고보다 더 고통스러운 외로움

선생님은 무기를 연도받고 대구, 공주, 대전교도소에서 23년간 복역하다 85년 8월 가석방되어 나오셨다. 선생님께서 가석방되어 나올 때 보호자가 된 사람은 공주교도소에서 결연을 맺었던 교도관이었다. 결연을 맺고 얼마후 다른 직장으로 옮긴 그 사람은 19년간 추석이나 성탄절때면 편지와 3천원씩을 영치해 주었다. 치약이나 칫솔을 사 쓰라며.

"에이구, 다리나 좀 해주지 아직까지 사람을 이렇게 놔뒀소."

외발로 목발을 짚고 출소하는 선생님을 보고 그 사람이 한 컷마디였다.

출소후 선생님은 음성 꽃동네에서 3년간 생활하시나 돈을 넘긴 불구자 노인에게 '자립'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었다.

"처음에 피복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이 문제였죠. 감옥에서 일찍 자던 습관 때문에 야근을 못하겠더라고요."

공장에서 쫓겨난 선생님은 빨치산 동료인 박순자님의 전화를 받고 89년 부산으로 내려가셨다. 처음 박순자 님으로부터 매달 생활비를 얻어 생활을 하던 선생님은 150만원짜리 방을 얻고 부업을 시작했다. 가족장갑의 가죽이 팽팽해지도록 가공하는 일이었다.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의 대가로 돌아오는 돈은 고작 12만원이었다.

다시 서울로 올라온 선생님은 많은 허드렛일을 하며 겨우겨우 생활을 꾸려가셨다.

구슬땀은 일도 해보고, 난방이 되지 않는 방에서 겨울을 나며 식당에서 쓰는 티슈를 만드는 간이공장에서 일도 했고, 공동변소 청소하는 일도 하셨다. 어떤 때는 아이스크림 공장에서 드라이아이스 다루는 일을 하다 손에 동상이 걸리기도 했고, 가구 만드는 공장에서 막일도 하셨다.

그후 선생님은 후원회의 주선으로 낙성대 '만남의 집'으로 옮겨 와서 생활하신다.

불안정한 걸음걸이로 집안일을 하고, 마당에 채소를 기르시며 나이 많으신 장기수 선생님들의 '생활 선생님'이 되었다. 그러나 99년 3월 31절 특사로 가석방된 장기수 선생님들의 접대로 분주하게 움직이셨던 선생님은 그만 '뇌출혈'로 쓰러지셨다. 수술을 받았지만 왼쪽 팔과 다리는 마비되어 현재 인천 나사렛 한방병원 605호에 입원해 계시다.

고세순 사건

-만삭의 임신부, 감옥에 갇힌후 태아 사산-

사건의 요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만삭의 임신부 고세순씨(28세)가 2달동안 경찰서 조사실과 교도소에 갇힌 후 아기를 사산하였다. 고씨는 95.12.4. 임신 8개월인 상태에서 전라남도 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었다. 고씨가 체포된 직후 만삭의 임신부인 점을 이유로 고씨의 가족과 변호인, 종교계, 여성계, 학계, 시의회 등은 고씨의 석방을 탄원하였고 재판부에 구속적부심과 보석을 청구하는 등 온갖 노력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고씨는 체포된 후 2달 가까이 된 96.2.5. 고씨가 심한 복통을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뱃속의 아기는 이미 사망한 후였다.

재판부, 구속적부심과 보석 모두 기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경찰 수사기간 20일, 검찰 수사기간 20일 총 50일동안 수사할 수 있다.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경우 2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구속된 피의자는 1심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체포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구금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구금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는 구제절차로는 구속적부심 청구와 보석 청구밖에 없다.

구속적부심은 기소전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고 보석은 기소후 담당 재판부에 청구할 수 있다. 95.12.13. 고씨의 남편은 고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95.12.14. 광주지법 이상훈 부장판사는 구속적부심을 기각하였다.

또 95.12.26. 고씨의 남편은 담당재판부에 보석허가를 신청하였다. 보석허가 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분만에정일이 96.3.1로서 임신 31주기인 만삭의 상태에 있어 수형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으며, 장기구금의 심적 육체적 고통으로 인하여 출산을 하더라도 정상분만을 기대할 수 없는 처지에 있으며, 정상분만을 하더라도 출산아가 영아시절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하는 기구한 운명에 직면하여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96.1.31. 광주지법 이상훈 부장판사는 "보석을 허가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아니다."라며 기각하였

다. 또한 95.12.26. 광주 북구청 청장 김태홍씨는 "고애순의 남편 박종민이 공익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구청의 청장으로서 고씨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며, 보석 허가 후에 실정법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지겠다."며 재판부에 보석허가를 탄원하였다. 그의 종교계, 여성계, 학계, 시의회등 각계에서 고씨의 석방을 탄원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산부 고애순의 건강상태

고씨는 체포 후 5일동안 전남도경 보안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95.12.8.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이때 부터 고씨는 고열과 부종, 각질현상이 발생하여 건강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다.

고씨는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고열에 시달렸는데 열이 날때면 왜 그런지, 어떻게 해야할 지 겁이 날 정도였다. 또 손과 발, 얼굴이 부어 있었다. 특히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눈을 못 뜰 정도로 부종 현상이 심했다. 또 얼굴에 껍질이 벗겨지는 각질현상이 계속되었다. 특히 95.12.14.과 12.15. 고씨의 건강은 심각한 상태에 빠졌다. 고혈, 부종, 각질현상이 더욱 심해졌을뿐 아니라 갑자기 맑은 물과 같은 분비물이 많이 흘러나와 양수가 터진 게 아닌가 하고 걱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고씨가 할 수 있었던 조치는 임신, 출산 관련 책을 보며 증세를 걱정하는 것 뿐이었다. 그것은 '조산증세'였던 것이다. 당시 고씨는 교도소 당국도 고씨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인정했는지 12월 26일 처음으로 의무과장이 고씨는 만나주었다. 그러나 의무과장이 한일은 고씨의 혈압을 측정한 것이 전부였다. 의무과장은 고씨에게 "1월초에 의사 검진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말했다. 교도소에는 의사가 없었고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의무과장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그후로는 의무과장 조차 만날 수 없었다.

1월이 되면서 부터 고씨는 거동하기조차 힘들어졌다. 그러나 고씨는 태아를 위해 하루 30분씩 허용되는 운동시간에 운동장(5평 정도 크기로 사방이 콘크리트 벽으로 막혀있어 하늘만 볼수 있는 상태)을 힘겹게 걸어다녔다. 그나마 운동이라도 하고 나면 지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곤했다. 당시 고씨의 건강상태가 어떠한지 몇가지 예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12월 중순경 교도소장의 사방순시 도중 처음으로 고씨의 얼굴을 본 소장이 즉각 담당 주임을 불러서 "의무과 상담을 시켜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 또 12.11. 고씨가 이용성 검사에게 첫 조사를 받으러 검찰청에 갔을 때는 포승과 수정을 한 상태였다.

그러나 고씨를 대면한 검사는 두번째 검취부터는 포승은 풀고 수정만 한 채 조사를 받게 했다.

교도소의 진료거부행위

고씨는 광주교도소에 수감된 직후부터 매일 의사 검진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교도소 당국은 "임신말기에는 누구나 그런 증세가(고열, 부종, 각질현상 등)나타나는 것 아니냐. 임산부는 응급환자가 아니므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계속 검진을 거부하였다.

일반적으로 임신 후반기인 7개월부터는 1달에 2회, 9개월부터는 1주일에 1회씩 의사검진을 받아야 하는데도 교도소 당국은 이를 무시하였다. 고씨는 2달간 구금상태에서 단 한 번 의사검진이 허락되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재소자의 건강권 보호 차원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다. 96.1.25. 고씨의 첫 재판이 열렸을 당시 판사는 재판을 연기하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출산예정일을 알아야 하고 교도소 당국의 의견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서류가 갖춰지면 구속집행정지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도소 당국은 고씨의 수감 이후 의사검진을 한 사실이 없었기에 출산 예정일을 알지 못했다. 교도소 당국은 재판부에 출산 예정일을 기재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의사검진을 허락한 것이다. 고씨는 구금된지 57일만인 96.1.29. 처음으로 광주교도소 근처에 있는 '임정란 산부인과'에서 검진을 받았

다. 당시 검진은 '초음파' 검사만 이뤄졌다. 산부인과 검진 종류의 필수인 혈압측정, 심장박동 측정, 체중 측정은 제외되었다. 이때 산부인과 전문의 임정란씨는 "일반적인 태아의 성장에 비해 2주 정도 미숙하나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소견을 밝혔다. 결국 구금된 임산부에 대한 단 한번의 의사검진은 출산예정일을 확인하는 정도의 형식적인 조치였을 뿐이었다.

교도소의 수감조건

한국 교도소의 수감조건은 국제적인 기준에 조금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임산부를 수감할 수 있는 시설과 조건은 그 어디에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고씨의 수감조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고씨가 수감되었던 방은 3.3평 크기로 수감자가 많을 때는 6명, 적을때는 4명까지 함께 기거하였다. 고씨의 방은 다른 재소자의 방과 마찬가지로 난방이 되지 않았다. 만삭의 임산부를 냉방에 가둬두고 있는 점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비난을 하자 12월 하순경 교도소 당국이 연탄난로를 설치해 주었다. 연탄난로나마 설치된 것은 극히 드문 경우였다.

그러나 하루에 4-5번 연탄을 가는 일은 수감자의 몫이었기에 연탄을 갈 때마다 독한 가스를 마셔야 했다. 또 방 한편 구속에 설치된 난로 주변을 벗어나면 바깥과 별차이 없이 감방은 몹시 추웠다.

교도소에서 지급되는 음식이 무척 짜고 매워 교도소 음식을 모두 물에 씻어 먹어야 했다. 교도소 당국이 임산부를 위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목욕은 일주일에 한 번 10분동안 허용되었고 세수대야 5-6개 분량의 물로 목욕을 해야 했다. 이러한 처우도 다른 재소자에 비하면 나은 편이었다. 다른 재소자들은 더욱 목욕시간이 짧고 목욕물의 양도 적었다.

또한 빨래, 설거지 등을 쪼그리고 앉아서 해야 했기에 임산부의 고씨로서는 이런 일도 여간 힘든게 아니었다.

사산

고씨는 96.1.31. 80일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 풀려났다. 고씨가 집으로 돌아온 다음날인 96.2.1.부터 3일간 바깥에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의 폭설이 내려 병원에 가지 못했다. 96.2.5. 1시경 갑자기 아주 심한 통증이 왔다. 고씨가 병원에 도착한 건 한시간 뒤. 그러나 아기는 사망한 상태였다. 고씨를 진찰한 의사는 "양수가 이미 터진 상태이고 자궁수축도 안되고 열이 많이 차 있다"고 말했다. 고씨는 출산촉진제 주사를 맞고 태내에서 이미 죽은 아기를 분만하였다.

고애순 사건에 대한 산부인과 전문의의 의견

고씨 사건을 접한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하였다.

"고열, 부종, 각질현상은 임신말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세가 아니다. 임산부가 조금 덥다고 느낄 수는 있으나 고열은 임산부에게 좋지 않은 현상이다. 또 만삭일 경우 체중때문에 다리가 조금 부을 수 있으나 눈을 뜨지 못할 정도의 부종은 심각한 경우이다. 특히 각질현상은 세포가 빨리 죽어 떨어지는 것이기에 위험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24일과 25일 맑은 물같은 분비물이 많이 흐른 것은 양수가 샌 경우라고 볼수 있다. 이때 병균이 침투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고열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 또 임산부는 위생청결을 요하는데 목욕조건등 위생조건이 나빴기에 병균이 침투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고애순씨의 경우는 교도소에서 임신중독증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 부종이 있을 경우 고단백, 저염식등 식이요법을 해야 하는데 고씨는 부종과 고열이 있는 상태에서 짜고 부실한 음식을 먹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다.

적어도 고씨는 95.12.24. 심각한 상태가 발생했을 때 병원으로 옮겨져 의사의 체크를 받았어야 했다. 96.1.29. 의사검진 당시 '2주 미숙아'라고 한 검진 결과를 보더라도 태아를 정상분만하기에 힘든 조건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은 명백한 살인이다. 그런 조건이었다면 사산이라는 결과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이 사건은 만삭의 임신부를 체포 구금한 경찰 당국, 구속적부심과 보석등 법적 구제를 외면한 사법부, 최악의 구금조건에 가둬두고 의사진료마저 거부한 교도소 당국에 의한 '태아살인' 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해의〉

* 그리운 조국에 오고 싶어도 죽어서도 못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조국의 민주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입니다. 전국연합 여성국은 국가보안법 여성피해자 대회를 준비하면서 일본의 재일한국민주여성회 김지영 회장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주일 한국대사관은 비자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단, 평생을 받쳐왔던 통일운동이 잘못됐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쓰면 비자를 발급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일한국민주여성회 김지영 회장님은 반성문을 쓸수 없었습니다. 반성문은 전향서와 다를 바 없으며 비굴하게 입국할 수 없다는 이유때문이었습니다. 대신에 VTR을 직접 제작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김지영 회장님은 재일한국민주여성회가 반국가단체로 판시받은 적이 없음에도 남편의 유해를 조국땅에 묻고자 했을때도, 부친상을 당했을때도 입국을 거부당하셨습니다. 국가보안법이 무엇이길래, 이처럼 인륜마저 저버리게 하는 것입니까?

전국연합 여성국은 아직까지도 고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해외동포들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국가보안법 철폐 해외연대에서 보내온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에 대한 자료와 재일한국민주청년회에서 보내온 자료를 실습니다 *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은 근 30년 동안 자주·민주·통일을 위하여 일관되게 투쟁해 온 재일한국인 민족민주단체이다.

1. 한통련의 역사

한통련의 전신은 73년에 결성된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이다.

한민통은 72년 10월 유신 쿠데타로 인하여 사실상 망명상태에 있던 김대중씨와 재일한국인민주세력인 함의하여 꾸린 조직이다. 한민통은 본국 군부독재정권을 반대하여 민주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일 본대한민국거류민단(민단)의 양심적인 민주인사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한민통에 결집한 민단민주파 세력과 재일한국청년동맹(한청)등은 재일동포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투쟁해 온 사람들이었다. 그 당시 민단은 반공을 국시로 하는 본국 정부의 정책을 추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으며 조직운영에 대한 본국 정부의 노골적인 간섭으로 점차 활동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

60년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한 직후, 민단은 반공이데올로기로 정치적으로 이용해 온 본국 정부의 재일동포정책을 비판하여 민단의 자율성을 선명케하는 획기적인 '선언'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5·16쿠데타에 의한 박정희 군사정권의 출현으로 상황은 또다시 바뀌어졌다. 박 정권은 일제시대 친일파로

유명했던 권 일 민단 중앙단장을 통하여 민단 조직에 대한 간섭을 시작하여 민단의 자주성을 지키려는 양심적인 인사들이 61년 10월에 '민단정상화유지간담회'를 조직하고 민단 조직의 자주화,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재일동포의 '법적지위투쟁' 등 일본 정부에 대한 권익옹호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였다. 그것이 앞으로 한민통에 합류한 민단민주세력들의 원천이다.

이 민주세력에 대하여 박 정권은 날조와 강압 등 술한 간섭과 탄압을 가해 왔으나 민주파는 그것을 배격하고 민단내부에 지지세력을 확대해 나갔다.

72년 7·4남북공동성명 발표는 본국뿐만 아니라 재일동포 속에서도 조국통일운동에 거대한 물결을 일으켰다.

민단민주세력들은 일본의 전국에서 공동성명지지 환영하는 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분단 후 처음으로 민단과 총련, 한청과 총련, 한청과 조청 등 각계 각종 수준에서 공동대회가 열렸으며 남북공동성명에 대한 지지는 재일동포사회 전반에 확대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재일한국인민주세력은 발전하는 정세에 호응하여 통일운동을 추진하는 모체로서 8월 20일 '민족통일협의회(민통협)'을 결성하였다. 7·4공동성명의 정신인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에 따라 조국통일을 달성할 것을 강령으로 한 민통협의 결성으로 재일한국인운동은 민단이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나 전민족적 차원의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재일동포사회에서 통일기운이 높아가고 민단민주화여론이 강해지자 이를 두려워한 박 정권은 민단 중앙집행부에 압력을 가하여 제명, 정권처분, 산하단체 인정 취소 등 민주세력을 민단에서 축출하기 위해서 탄압공세를 가하였다. 71년 10월 유신 쿠데타가 일어나 재일동포운동에 대한 간섭과 탄압도 날이 갈수록 강해졌다.

이러한 독재정권의 부당한 압력에 대하여 재일동포들이 드디어 일어섰던 것이다.

이리하여 73년 8월, 한민통은 결성되었다. 그러나 결성을 1주일 앞둔 8월 8일 한민통 초대장으로 내정되어 있던 김대중씨가 KCIA에 의해 납치당하였다.

한민통의 출범은 김대중씨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일본의 각계 각층과 세계 여론에 사건의 진상을 알리며 김씨의 원상회복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투쟁을 끈질기게 전개하였다.

77년에는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해외한국인민주세력의 역량을 하나로 묶어 세우기 위하여 '해외한국인 민주단체대표자회의'를 도쿄에서 개최하여 민주민족통일한국인연합(한민련)을 결성하였다.

한민련은 국제기관에 호소하여 군사독재정권에 반대하는 국제여론을 환기시켰다.

또 재일한국인 정치범의 석방을 요구하여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세계적인 규모로 반독재민주화투쟁과 조국통일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한민통의 투쟁으로 궁지에 몰리게 된 군사독재정권은 해외 운동에 타격을 가하고 최대의 정적인 김대중씨를 말살하기 위하여 78년 재일한국인 유학생에 대한 국보법 혐의사건 재판에서 대법원은 느닷없이 한민통을 반국가단체로 판결을 내렸다. 그 판결이 역대독재정권에 이어지고 지금 김대중 정권하에서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89년 새로운 시대상황에 호응하여 한민통 조직을 발전적으로 개편하여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으로 발족하였다.

그해 4월 고 문익환 목사가 방북하여 김일성 주석과 통일문제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허담 조평통 위원장 사이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획기적인 일이 있었다.

또 9월에는 임수경 전대협 대표가 평양청년학생축전에 참가, 판문점을 통과하여 귀환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이런 상황속에서 남쪽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의 개최를 북과 해외에 제기하였다.

한통련은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해외 한국동포단체에 널리 호소하며 한민련을 중심으로 '범민족대회해의추진본부'를 조직하고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적극적인 투쟁을 벌였다. 그 후 범민련 해외본

부를 꾸리는 데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범민련 일본지역본부 의장, 해외본부 부의장으로 한통련 부의장을 보내고 있으며 공동사무국에도 한통련 조국통일위원장을 보내고 있다.

2. 한통련 조직

도쿄에 중앙본부를 두고 있으며 가나가와, 도카이, 교토, 오사카, 효고에 지방본부를 두고 있다. 회원단체로는 재일한국청년동맹과 재일한국민주여성회가 있다.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대회가 2년에 1번씩, 중앙위원회가 1년에 1번씩 소집되는

집행기관으로서 중앙집행위원회가 있다.

기관지로서 <민족시보>가 있다.

3. 강령

1. 우리는 외세를 반대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쟁취하기 위해 적극 활동한다.
2. 우리는 군부독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 적극 활동한다.
3. 우리는 민족분단의 비극사에 종지부를 찍고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헌신 분투한다.
4. 우리는 반전·반핵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한반도를 비핵지대화하고 비동맹중립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5. 우리는 재일동포의 민족적 권익을 옹호하며 모든 해외동포와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연대를 더욱 강화한다.
6. 우리는 자주 민주 평화 이념에 입각하여 국제연대운동을 더욱 강화한다. 🗣️

재일한국민주청년동맹

1. 재일한국청년동맹의 역사

재일한국청년동맹의 전신은 조국이 해방된 1945년에 결성된 재일본조선건국촉진청년동맹(건청)이다. 건청은 재일본조선거류민단 결성(1946)에 참여하였으며 귀국사업, 민족교육사업, 재일동포의 권익옹호운동을

벌여 왔다. 또 남한단독선거, 단독정부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후 이승만의 개입으로 인하여 1950년 <재일본대한청년단>으로 조직을 개편되었으나 1958년의 대한청년단 제6차 대회에서 광동선생님(현 한통련 의장)이 단장으로 당선됨으로써 조직의 개혁이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1960년 4.19혁명을 계기로 조국의 민주적 발전과 통일의 실현을 중심목표로 삼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재일한국청년의 운동체로서 <재일한국청년동맹>(한청)이 결성(1960.10.9)되었다.

한청은 1960년대에 재일한국인의 권익옹호운동(한일조약반대투쟁,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쟁취투쟁, 민족교육사수투쟁, 외국인학교법안반대투쟁, 출입국관리법안반대투쟁 등)을 열심히 전개하였다.

또한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자 재일본조선청년동맹과 <공동성명을 지지하는 한청 초청 공동대회>를 일본 각지에서 개최함으로써 재일동포사회의 통일열기를 고조시키는 데 큰 역할을 다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 민단조직에 대한 박정희군사독재의 개입과 지배가 심화되며 한청은 이를 반대하는 민단민주화투쟁을 열심히 전개하였다. 그러나 민단내 민주인사에 대한 제명, 정권처분이 난발되며 한청도 산하단체 인정을 취소되었다.

그후 한청은 민단에서 제명된 민주인사들과 본격적인 반독재민주화투쟁으로 나서게 되었다.

1972년 박정희독재가 유신쿠데타를 강행하자 6단체협의회(민단도교, 민단가나가와, 민단자주수호위원회, 대한부인회 도쿄본부, 민족통일협의회, 한청)를 결성하여 그후 일본을 방문하였던 김대중씨와 함께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를 결성하는데 합의를 보았다.

그후 김대중씨는 일본에서 한국중앙정보부으로 인하여 납치당했으나, 재일민족민주세력들은 1973년 8월 13일에 한민통을 결성함으로써(의장 : 김대중, 의장대행 : 김재화) 본격적인 반박정희투쟁을 벌이게 된다.

1970년대는 한청을 와해시키기 위한 여러한 모략사건이 날조되었다. 그러나 한청은 한민통과 함께 반독재민주화투쟁을 힘있게 전개하고 또 문화공연 등을 통하여 독재정권하에서 싸우는 한국 민주인사들의 모습을 일본의 양심적이고 진보적인 인사, 단체, 노동조합들에 널리 알림으로써 한일연대운동을 구축하고 한국민주세력, 한국노동자를 연대하는 조류를 만들어냈다.

1977년에는 민주민족통일해의한국인연합(한민련)이 결성됨으로써 해외각지에서 전개되어 온 반독재민주화, 통일운동이 단일화되었다.

한민련 결성을 무서워한 박정희독재정권은 민단 청년회, 폭력배까지 동원하여 회의를 습격시켜(이계노하파 사건) 유혈사태까지 일으켰으며 한민련 결성을 무산시키려 했다. 그러나 전국에서 결집한 한청맹원들이 마지막까지 회의장을 방위하여 드디어 한민련이 결성된 것이다.

1980년 광주에서 민주화를 외치고 나선 시민 2000명을 학살하고 권력을 강탈한 전두환군사독재는 암흑재판으로 김대중씨를 말살하려 했다.

한청은 <광주대학살 규탄, 군정타도 전국행진단>을 조직하고 일본 각지에서 전두환군사독재 타도와 한국의 민주화를 호소했다. 또 김대중씨를 구출하기 위한 대대적인 한일연대투쟁을 전개함으로써 군정반대와 김대중씨 구출을 향한 일본의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80년대는 박정희 시절과 같이 재일한국인 운동에 대한 노골적인 개입과 폭력탄압이 자행된 시기였다.

그러나 한청은 80년대를 통해 전두환을 타도하기 위한 반군사독재투쟁을 과감히 치르는 것과 동시에 전두환을 지원하는 일본정부, 팀 스피릿 등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긴장을 고조시켜 전두환을 지원하여 분단고정화를 획책하는 미국을 반대하는 반외세자주화투쟁을 다그쳤다. 1987년의 6월민중항쟁 때는 한국대사관, 영사관 등 본국의 주일기관에 대한 연이은 항의행동을 조직하여 일본각지에서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위한 선전활동을 조직하는 등 한국민중의 투쟁에 대한 연대를 호소하는 투쟁을 적극 벌여왔다. 그 과정에서 한국영사관과 연계를 지닌 일본경찰의 탄압책동으로 87년 6월에 한청 오사카본부 김창오위원장(당시)이 체포되었다. 그러나 7년의 걸친 재판을 한일연대투쟁의 일환으로 전개했으며 6월민중항쟁에 연대하는 재일한국인의 투쟁의 정당성과 일본 경찰의 탄압의 부당성을 입증시켜 김창오위원장(당시)은 무죄 판결

을 쟁취하였다.

88년의 남북학생회담 쟁취투쟁과 89년의 문익환목사, 임수경학생의 방북을 계기로 자주적인 남북교류와 조국통일을 향한 기대가 높아졌다.

그리고 전민련의 <범민족대회>제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한청은 한통련(89년 한민통을 발전적으로 개편), 민주여성회 등 재일민족민주세력과 함께 <범민족대회일본지역추진본부>를 결성하여 범민족대회의 성사를 위한 투쟁을 벌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한청은 본격적인 조국통일운동에 나서게 된다.

한청은 제1차 범민족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많은 대표들을 북부조국에 파견하여 모든 행사에 전투적으로 또 헌신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범민족대회 성공에 이바지하였다.

그후 9차에 걸친 모든 범민족대회에 참여하여 왔다.

92년에는 범청학련 결성에도 참여하여 현재 범청학련 해외본부의 중심적인 역할과 책임을 지고 있다.

한청은 지금도 자주, 민주, 통일을 활동의 중심과제로 삼아 한국의 참된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2. 한청의 강령

1. 우리는 재일한국청년의 총력을 집결하여 조국의 완전한 통일독립을 위하여 헌신한다.

1. 우리는 모든 비민주주의적 세력에 반대하여 민주주의의 올바른 발전과 실천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우리는 심신을 단련하고 교양을 복돋우며 우방국가의 청년들과 제휴하여 진정한 세계평화의 실현에 기여한다.

1. 우리는 재일한국청년의 민족의식을 높이며 재일거류민의 권익옹호를 위하여 전력을 다한다.

● 한청은 한통련의 산하단체(회원단체)이기에 한통련의 강령은 한청의 강령이기도 함.

3. 한청의 조직 구성

재일한국청년동맹은 한국의 참된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일본 땅에서 다그치고 있으며 각 지방본부가 중앙본부를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여 투쟁하고 있는 단일조직이며 전국(일본)조직이다.

한청은 도쿄에 중앙본부를 두고 그 밑에 각 지방본부가 있으며 각 지방본부 밑에는 각 지부가 있다. 지부는 한청의 기본단위이자 해외(일본)에서의 자주, 민주, 통일운동의 지역거점이라 할 수 있다.

또 각 지방본부 단위의 지역협의회(지협)를 구성함으로써 각 본부간의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고 더 넓은 지역에 대해 여러 활동을 효과적으로 벌이고 있다.

한청의 최고사결정기관은 중앙대회(각 지방본부, 지부에서는 각 지방대회, 지부대회가 있음)이며 2년에 1번 개최하기로 되고 있다.

기관회의로서는 중앙위원회(중앙대회와 다음 중앙대회 사이에 개최), 중앙상임위원회(중앙본부 상근),

중앙집행위원회(각 지방본부 위원장 및 중앙위원장의 임명을 받은 자), 각 지방본부상임위원회, 각 지부상임위원회가 있다.

한청은 각 도시에 본부와 지부를 두고 있으며 한통련, 범민련, 범청학련에 소속되어 있다.

4. 한청의 활동

한청은 중앙본부가 제출한 하나된 방침 아래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활동, 대중활동을 각 지방본부, 각 지부의 실정에 맞게 벌이고 있다.

1)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 조국의 평화를 실현하고 연방통일조국을 실현하는 투쟁

- 범민련, 범청학련의 각종 사업

- 북한동포돕기운동

- 미국의 군사간장 고조책동과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반대하는 투쟁

: 특히 새 가이드라인을 내세워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나라>를 지향하며 대동아 공영권의 부활을 노리는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일본의 양심적인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한일연대운동을 벌임으로써 동북아시아와 우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향한 국제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2) 한국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고 사회의 참된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

- 김대중정권의 반민주성, 반통일성을 철저히 폭로 규탄하여 IMF신탁통치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 농민 등 모든 기층민중들의 생존권쟁취투쟁에 연대하는 활동

- 국보법을 철폐시켜 모든 양심수들의 석방을 쟁취하는 투쟁

: 한청은 70년대부터 일본시민단체, 인권단체들과 함께 재일한국인 정치범을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또 재일한국인 정치범 뿐 아니라 <정치범 없는 사회>를 구호로 한국의 모든 양심수의 즉시 석방을 요구하고 일본시민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대대적인 서명운동과 한국정부에 대한 전달, 주일한국대사관 등 주일기관에 대한 항의행동을 벌였다. 이 운동을 통해 많은 재일한국인 정치범들이 일본에 있는 가족들의 품에 돌아오게 되는 등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한청은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실현하는 견지에서 도올해 상반기의 가장 중요한 투쟁과업으로서 국보법 철폐와 안기부(국정원)해체 투쟁을 설정했다. 지금은 대중서명운동 등 다양한 국보철폐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3) 일본사회의 차별, 억압을 뚫고 재일한국청년들의 민족적 긍지와 교양을 복돋우며 진정한 애국자로 키우기 위한 활동

- 한청의 일상활동 (재일한국청년에 대한 계몽활동)

우리말 강습회, 청년교실, 문화씨클, 지역의 동포청년을 지부에 참가시키기 위한 호별방문, 동기강습회(스키 패스티벌), 하키강습회 등 다양한 교양사업, 대중사업을 개최하고 재일한국청년을 참된 애국자로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국가보안법 철폐를

우리 여성들은 조국의 민주화와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현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통일애국인사를 잡아 가두고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방해하고 있다.

이는 우리 민족 구성원의 절반인 여성에게도 커다란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다.

더이상 국가보안법을 내버려두고서는 진정한 민주주의도 평화적 통일도 이루어낼 수 없다.

민족의 절반인 여성이 나서면 안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제 우리 여성들이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국가보안법 철폐를 당당히 선언한다.

국가보안법은 조국의 평화통일을 가로막고 있다

남과 북은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합의서를 통해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의 3대 원칙을 천명했고 그동안의 불신과 대결을 해소하고 화해와 교류로 나가자는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통일의 당사자인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화해하고 교류할 수 있겠는가?

국가보안법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신념을 버리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을 40여 년간 가둘 수 있는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지금도 국가보안법에 의해 한총련과 범민련은 이적단체라는

족쇄에 묶여 있고 영남위원회나 반미구국 한양 등의 조직사건 조작으로 많은 양심수들이 양산되고 있으며, 민주사회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는 노동자, 농민, 시민, 학생 등이 탄압받고 있다.

이처럼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가로막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평화적 통일은 우리에게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세기말을 맞이하는 이시대에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하며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단결하자!

- 통일의 당사자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 국가보안법 최대의 피해자 양심수를 조건없이 석방하라!
- **재일인국민주통일연합** 반국가단체 규정, **범민련·인총련·영남위원회** 이적규정 철폐하라!
- 남북합의서에 배치되고 민간통일운동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찾아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향한

바라는 308 여성선언'

김영희 김월경 김지은 김혜란 권희선 남미숙 박순경 박영미 박용길 안운정 이선화 이영경 이은하 전경희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김기연 김영미 김은아 김재경 변시영 손미희 신향미 이나래 이은정 이정미 조선희 최영옥 최영은 최현주 민족자주평화통일당영역외 류금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김수연 김순옥 김중분 김혜수 배은심 서희자 오영자 이소선 장선순 전영희 민주학생가족협의회 김성환 김순림 김옥순 김정숙 박미준 박정순 안소영 안옥희 아귀림 아연이 이익숙 이정임 이형숙 임기란 임미자 임선순 송영숙 신민희 장수향 장재옥 정순녀 정정자 조순덕 조순선 황선희 구숙자 기옥 김명주 이선자 이영자 이은자 노동계 고희숙 김부자 김병선 김연자 김은경 김은숙 권미정 권미경 노우정 박인숙 윤선화 윤태영 염은경 원옥희 이미숙 이옥순 임미경 장정화 정승옥 정순택 정은선 정인숙 조미연 조미영 조분순 최민수 최숙주 최은민 한선주 한정에 문희경 강세연 김진아 김하영 박은영 박희미 김은숙 유영옥 이은진 조은하 최경숙 황승미 홍교계 김부미 김영미 김인아 김영희 김중옥 김진아 김영선 김영희 박순애 박지아 안정옥 이명순 정순이 정정민 조인영 최복연 최희숙 하정화 한소훈 이로계 김소강 김재아 문경옥 이명림 정혜옥 최인순 경기동부 김미희 김봉현 김현정 박미향 전영아 주경희 공계 송경숙 대구경북 김경안 김남희 김명희 김미영 김애림 김수영 김자영 김정자 김진숙 김현정 권춘희 권영희 권기녀 남은주 노성임 박영희 박수경 박진숙 박현정 서상희 안미경 안은주 양경순 우지영 윤영애 이연실 이지민 이진희 이혜정 장차순 정혜안 정유진 조현정 지은주 이도희 이은진 천진경 최정희 최혜영 홍미숙 부산 강영경 김분숙 김은진 박영남 박영미 안수영 염은희 유영란 이계영 이화수 함보영 황순현 서부경남 김명량 박남희 박종미 송영미 신금순 심숙희 이정옥 양미경 조정희 울산 강순영 강혜련 강효경 구정화 권순정 김수영 김정희 김주영 김혜란 김희영 류경민 박지현 박희영 배현영 손영진 신영주 오혜숙 우창일 윤애란 윤영아 이금희 이미애 이상아 이수미 이수현 이순삼 이유미 이은경 이은영 이은주 이정희 이진희 전영주 전주연 정미란 조영미 조인정 최성욱 최유미 하미경 하현숙 한수옥 홍경미 홍인수 홍정현 안건 김명숙 구순례 김강현숙 김상옥 김수형 김영구 김영정 김은숙 김향미 김혜자 남걸숙 류영신 문유미 박미자 박미애 박민혜 박혜연 배숙일 성미경 손순희 손자선 신선아 안미숙 안미정 안승아 오혜란 유선미 유혜숙 윤삼성 이경미 이마옥 이미혜 이선년 이실아 이영숙 이은주 이은희 이홍라 이현주 이혜정 이혜진 장수경 정정옥 정문채 정박기선 정보선 정연옥 정영주 조성혜 조옥화 조현정 천선혜 최미란 최영미 최애란 최희영 홍미영 경기남부지역여성노동조합 권옥희 이경진 전은옥 전효순 광주여성노동자회 이지은 장연주 정은아 서울여성노동자회 김숙자 이미자 이원아 장석희 황현숙 서울지역여성노동조합 김연자 <역외> 재일인국민주통일연합 강경희 강근수 김민혜 김지에 고성미 고영미 고전자 곤도마유미 국오길 김경미 김노부 김란희 김리에 김미수 김갑자 김수자 김미보 김미요 김양미 김양자 김영주 김우자 김유리 김유미 김은호 김애자 김이혜 김중남 김정이 김지영 김현혜자 김호자 김희자 김희혜 김희자 김희영 권미선 권민자 권지화 권성화 권향련 노행지 문년자 문영자 민상조 박공자 박미실 박옥자 박향자 방근혜 방향자 부영자 배영옥 서순자 서지영자 서행대 실영자 송성향 손순이 손안나 송혜원 송혜원 신가미 신구강 신모순 신순자 신유미 엄일미 양노자 양민자 양민지 양원지 양정자 양희자 오우경 유경숙 유진미 유혜미 윤가대 윤광자 윤영자 이마리자 이순덕 이애덕 이영녀 이연미 이정미 이은자 이은혜 이향나 이은자 정영자 장선옥 장순부 장정자 전영자 정귀미 정덕보 정영경 정옥자 조금지 조양심 조순자 조정자 조혜미자 주정미 최관자 최미희자 최중숙 최희숙 한갑수 한금순 한도순 한말순 한옥수 한영순 한재순 현유미 홍영미 황하자 황유자 황칙자 거주민주통일 민주연합 강경민 고명현 고영순 김상자 김수영 김순덕 김세영 김영애 김 윤 김정숙 김주연 김재순 김춘자 김향순 테레사 김 류선경 박성구 백연실 서진옥 성기순 성희순 송순애 신상신 신현주 안영신 안민택 홍이순 유은년 윤희주 이간실 이말영 이미경 이유자 이지원 이향금 이효순 임선빈 장선현 정미나 정유미 최경선 최미경 최선옥 하지만 한영실 허은선 뉴욕지역단체 김은희 백은주 서승혜 심주영 양주희 염기숙 이재원 이현아 이현정 전희실 최애경 한성민 김주수 이상미 (이상 486명)

전국연합 여성구에서 제안한 국가보안법 철폐를 바라는 여성선언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담당자 : 전국연합 여성국장 손미희
계좌번호 : 국민은행 822-01-0202-324 예금주 손미희
농협 033-01-195107 예금주 손미희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

우. 140-13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 37가 29-15 윤민빌딩 401호 전화·02-3273-2890 전송·02-3273-2893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찾아,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향해 국가보안법 철폐를 바라는 3008 여성선언

우리여성들은 조국의 민주화와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회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통일에국인사를 잡아 가두고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방해하고 있다. 이는 우리민족 구성원의 절반인 여성에게도 커다란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 오고 있다. 더이상 국가보안법을 내버려두고서는 민주주의도 평화적 통일도 이루어 낼 수 없다.

민족의 절반인 여성이 나서면 안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제 우리 여성들이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국가보안법 철폐를 당당히 선언한다.

국가보안법은 조국의 평화통일을 가로막고 있다.

남과 북은 7·4 남북공동성명이나 남북합의서를 통해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의 3대 원칙을 천명했고 그동안의 불신과 대결을 해소하고 화해와 교류로 나가자는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통일의 당사자인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화해하고 교류할 수 있겠는가?

국가보안법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신념을 버리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을 40여년간 가둘수 있는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지금도 한총련과 범민련은 이적단체라는 족쇄에 묶여있고 영남위원회나 반미구국 한양동의 조직사건 조작으로 많은 양심수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또한 민주사회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는 노동자, 농민, 시민, 학생 등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탄압받고 있다.

이처럼 우리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가로막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평화적 통일은 우리에게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세기말을 맞이하는 이 시대에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하며 새로운 천년으로 맞이하는 마음으로 조국의 민주화와 평화적 통일을 위해 단결하자!

통일의 당사자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국가보안법 최대의 피해자 양심수를 조건없이 석방하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반국가단체규정,

범민련·한총련·영남위원회 이적규정 철폐하라!

남북합의서 배치되고 민간통일운동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전국연합 여성국은 지난 7월 13일 '국가보안법 철폐를 바라는 3008 여성선언'(496명선언)을 남과 해외를 아우르며 성사시켰고 이는 반통일, 반인권적인 국가보안법 철폐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향한 여성들의 힘찬 첫 걸음이었습니다. 전국연합 여성국은 여성들의 힘찬 첫 걸음을 더욱 큰 단결의 발걸음으로 이어가고자 국가보안법 철폐범국민행동연대의 국가보안법 국회청원운동에 맞춰 국가보안법 철폐를 바라는 3008 여성선언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